



광남일보



농협 전남본부 “올해 수출 4100만달러 달성”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

7



‘완도 특산물’ 미국 수출...해외시장 확대
신우철 군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위상 제고”

8



영암,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돕는다
모자보건사업 30종 확대 시행

10



해남 ‘농부시인’ 오형록 에세이 출간
귀촌생활 담은 ‘농사꾼 시인 희망일기’

11

조간 제782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음력 3월 21일)



MZ 공무원과 함께하는 ‘5·18 인권 현장 투어’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5·18 자유공원 일원에서 열린 ‘5·18 인권 현장투어’에 참가한 서구청 MZ 공무원들이 영향체함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분산 에너지 허브 노린다

전북·제주와 ‘메가시티 첨단 산업’ 공모 선정
초광역 플랫폼 개발 협력...특화지역도 신청
맞춤형 전력망 등 에너지 자립모델 구축 박차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형
모델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신산
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에너지 거점
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북·
제주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메가시티
첨단육성지원(R&D)’ 실증사업에 선
정.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기반의 전력

계통 안정화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
수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호남권 메가
시티 경제동맹’의 에너지 분야 협력과제
를 실현하기 위한 첫 실행사업으로, 지역
간 에너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 협력사업은 광주의 단주기 ESS,
전남 주도 분산 에너지 관리 시스템
(DERMS), 전북의 초단주기 ESS, 제주

의 섹터 커플링 기술을 통합해 지역 내 분
산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계통 불안정 문제와 간헐성 문제를 해소
하고, 전압·주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력 제어 및 손실 최소화 방안도 함께 실
증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분산에너지 정
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에너지 공기업과 민
간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을 본격화했다.

동구, 남구, 북구 등 3개 자치구에서 태

양광, ESS, 전기가자 충전 등 다양한 분산
에너지원을 ICT와 연계해 실증하는 신산
업 활성화형 모델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1MW 규모 태양광 발전을 RE100
수요기업과 연계해 전력 거래를 실증하
고, RE100 메가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남구는 태양광 전력을 마을 주민 간에
거래하고 전기가자 충전까지 연계하는 지역
순환형 모델을, 북구는 태양광과 10MWh
ESS를 활용해 기업과의 전력 거래를 실
증하는 모델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실증 결과를 토대로
최근 산업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을 신청했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

현재 ‘7인 체제’로 운영

헌법재판소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
된다.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
능하지만 주요 결정은 차기 대법원장 취임

재판관을 임명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
다. 현재는 18일 오전 11시 현재 대법당에
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장 권한대행과 이미선(26기) 헌법재판관
퇴임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
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



문형배



이미선

고 있다.

현재가 전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지된데 따른 것이
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의 7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
이다. 헌재법 23조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희망의 빛’ 5·18 축제 펼쳐진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17~18일 금남로 전야제
오월정신·시대정신 표현



오월광주가 있
었음을 알리는
장으로 마련한
다.
전야제의 시
작을 알리는
오월시민난장
은 17일 오전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
사’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오월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민주
주의, 세계 민주주의 심장으로서 자리
잡는 광주,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을 포함한 개헌으로 민주주의 공고화
등을 추진 목표로 전국 곳곳에서 관련
사업들이 일제히 펼쳐진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준
비위원회는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올해 5월을
오월정신이 전국화, 세계화가 되는 개
화기로 삼고, 80년 대동세상을 뛰어넘
어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과 표상을 보
여주는 민주주의 대축제로의 기념행
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 행사는 광주를 찾는
시민들이 광주의 대동세상을 특별한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다.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진상규명이라는
오월의 과제 완수에 대한 시민적 공감
대를 확보하고 실천을 결의한다.

올해의 슬로건은 ‘아! 오월, 다시 만
난 오월’이다. 이는 아픈 역사로 남은
80년 5월의 광주가 2025년 민중항쟁
승리의 오월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담
았다.

전야제는 1부 ‘모든 이들의 광주’ 환
영의 대축제, 2부 ‘승리의 오월’ 민주
주의 대축제, 3부 ‘새로운 세계의 빛’
빛의 대축제 등으로 구성되며 5월 17
~18일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다.

전야제는 오월시민난장, 민주평화
대행진, 대동한마당 등이 진행되며
1980년 광주가 겪었던 오월과 12·3 내
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교차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이어졌던 시민들의 연대와
저항, 민주주의 정신의 뿌리에 80년

11시부터 펼쳐진다.

시민난장은 오월연극제, 민주주의
대합창 등 각종 공연을 비롯해 오월 정
신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오후 4시에는 풍물패와 시민악사들
이 금남로 등에서 전야제 시작을 여는
‘오월길맞이’가 펼쳐진다.

동시에 각계각층이 각 북동성당, 조
선대 정문, 전남대 정문, 광주역에서
출발해 금남4거리, 금남로 전야제 무
대 앞까지 ‘민주평화대행진’을 진행하
면서 1980년 5월의 가두행진을 오늘
의 현실에 맞게 재현한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5·18의 정
신과 의미, 가치를 담은 다양한 공연
이 펼쳐진다. 이후 오후 9시30분부터
는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들과 함께하는 집단 놀이인 대동한마
당이 열린다.

눈에 띄는 점은 전야제가 이들 동안
진행됨에 따라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에 ‘잠 못드는 밤-텐트촌’을 설치해
5·18을 찾은 이들을 위해 운영한다.

다음 날인 18일 오후 2시부터는 세
대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의 의견을
수렴해 12·3내란 이후의 새로운 민주
주의 가치를 확립하고 미래 오월과 민
주주의를 얘기하는 공론장인 민주대
성회가 열린다.

오병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
회 상임행사위원장은 “45주년 5·18민
중항쟁기념행사를 다양한 시민 참여와
행사 과정을 통해 뜨거운 열광까지 노
력하고 있다”며 “12·3 내란 이후 다시
만난 오월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떨감처럼 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버린 담배꽂초와
무분별한 취사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 성냥, 라이터는 두고가고!
- 취사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